

교회소식

1.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전도의 삶을 살기 바라며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2. 7월 18일 주일은 교회 창립 22주년입니다. 협력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창립 주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주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27
3. 2020년 한해 헌금한 헌금 영수증이 지난주에 이어 완결 발행되었습니다
4. TEE 성경공부 '신앙의 토대반' 수료자들입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신앙의 토대를 잘 세우기 바랍니다(수료증이 준비되었습니다).
박병민, 이기중, 최희숙, 박혜정, 손조훈, 정현열
5. 금요 저녁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전 이전과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길을 기도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6. 쌀쌀하고 고르지 못한 날씨지만 예배와 함께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J u n e

교회사역일지
 6월 13일(주일) 전도 주일
 6월 27일(주일) 성찬 주일
 6월 30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6월 20일 (주일) 이광희 장로
 6월 23일 (수) 이혜경 집사
 6월 27일 (주일) 박병민 장로
 6월 30 (수) 임병숙 권사

6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이창윤, 문지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발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24호 2021.06.13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30분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인도: 이태한 목사 이성훈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시편 138:1-2	인도자
* 찬 송	15장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다함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540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현석호 장로
성 경 봉 독	창세기 22:1-8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완전하신 그 사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태한 목사
찬 송	370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다함께
* 응 답 송	171장 (1절)	다함께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아프리카 차드 양승훈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도 동역자들에게 주님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차드는 대통령이 후계자로 키워온 셋째 아들이 과도 군정을 이끌며 과도정부 수반이 되었지만, 반군은 재집권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왕정이 아닌데, 그 아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것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군은 발포를 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팬데믹과 더불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차드의 실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차드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변화 많은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신 주님만 붙잡는 차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만들 지역 방문: 만들 지역은 수도 은자메나에서 약 6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남부 지역입니다. 침례교회 계통에서 오래전 복음을 전했지만 한동안 복음에 소외되어 교회가 많이 무너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 동료 친구 선교사와 함께 방문하고 격려하고 필요들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의 열심과 수고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가진 전략은 투 트랙 전략으로 남부 기독교 지역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깨우고 세워 현지 교회가 선교를 담당하게 하는 사역과 중북부의 무슬림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역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들 지역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 많은 무슬림들이 남부에 정착하면서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사역과 함께 이웃의 무슬림을 선교하는 사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기타 사역들과 계획: 베베자 교회에서의 말씀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 코로나로 인해 평신도 리더십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져 시작한 교단의 평신도 성경학교에서의 일대일 제자 양육 세미나가 잘 마쳐졌습니다. 신학교의 강의도 여러 혼란한 가운데서 잘 마쳐져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대로 들은 이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되어 복음의 증인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기도제목

1. 과도 정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충이 사라지도록
2. 만들지역에 새로 개척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이옥화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6:1-2
봉	독		가르치고 권하라
설	교	Sermon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20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6월 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하나님의 테스트와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22:1-4

고향을 떠나야 했던 믿음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받을 시험이 있었습니다(22:1).

1)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유혹)하지 않으십니다(약 1:13). 그러나 상을 주시기 위한 연단인 시험(테스트)를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1) 했던 아브라함의 대답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Andrew Murray의 책 ‘순종’에서 언급되었듯 개인적 밀접 관계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약 2:23)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에 이 부르심은 준비된 순종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2). 이 명령은 혼란스러우며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도 모순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이나 불평도 없이 바로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테스트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어떤 시험이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테스트로 인해 오히려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약 1:2-4). 이 온전함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며(창 22:12) 눈으로 주님을 뵈옵는 기쁨을(욥 42:5) 누리게 됩니다.

3) 하나님 테스트의 출발점: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2)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최대의 기쁨이며 생명과도 같은 의미의 아들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만의 이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면서도 만물과 주권까지 모두 주님의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대상 29:11) 또 욥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라(욥 1:21)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삭을 얻은 것처럼 믿음은 무엇인가를 얻으며 시작되지만 그 얻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믿음은 완성됩니다.

4)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습니다(3).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Spurgeon 목사의 말처럼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어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장작보다 더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가는 동안(3-4) 얼마든지 순종의 마음을 반복할 시간을 주신 것은 철저하고 자의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없는데도 지체 없이 갔던 그 3일 길은 아들보다 먼저 아브라함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고는(갈 2:20)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선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갈보리 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2.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지 않고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성도들의 질병과 경제, 가정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떠나가도록.